



몰도바

KOTRA 키예프 무역관 작성



KOTRA COUNTRY REPO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자료원: CIA

1. 국가 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몰도바(Moldova, 공식국명은 Republic of Moldova)
위치	○ 동유럽,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중간(국경 인접국: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 위도 45°, 북위 49, 주로 경략 26°와 30° E 사이 사이
면적	33,700km ²
기후	○ 대륙성기후 - 여름 평균기온 약 20 °C (68 °F), 겨울 -4 C (25 °F)
수도	키시네우(Chisinau, 67만 명)
인구	○ 3,550,852 명 (트란스니스트리아 제외, 2017년 1월 기준) ○ 인구밀도 121.9 /km ²
주요 도시	키시네우(Chisinau, 68만 명), 발티(Balti, 14만 명), 힌세스티(Hincesti, 17만 명)
민족	몰도바인(78.2%), 우크라이나인(8.4%), 러시아인(5.8%), 가가우즈인(4.4%), 루마니아어(2.2%), 불가리아(1.9%)
언어	몰도바어(공용어, 일종의 루마니아어 방언), 러시아어(공용어는 아니나 일부 사용되고 있음)
종교	러시아 정교, 가톨릭
건국(독립)일	1990년 6월 23일 소련에서 독립 1991년 8월 27일 주권 선언 1994년 7월 29일 독립선언
정부형태	○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혼합형태 ○ 입법부: 단원제(101석) ○ 입법부 의석분포(2014.11.30 총선 결과)

국가원수	대통령: Igor Dodon (2016년 12월 23일 대통령으로 선출)
주요 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권연정세력 - Liberal Democratic Party(자유민주당) : 5석, Democratic Party(민주당) : 41석, Popular European(친 유럽당) : 10석 ○ Liberal Party(자유당) : 10석, Party of Socialist(사회당) : 24석, Communist Party of Moldova(공산당) : 6석, 무소속 : 5석

자료원: 몰도바 통계청. 대통령실. 의회 홈페이지, EIU, CIA The World Factbook

나. 경제지표

GDP(백만 달러)	5,064(2009), 5,913(2010), 7,082(2011), 7,285(2012), 7,985(2013), 7,983(2014), 6,513(2015), 6,750(2016*), 7,813(2017*)
실질 경제 성장률	-6.0%(2009), 7.1%(2010), 6.4%(2011), -0.7%(2012), 9.4(2013), 4.8%(2014), -0.4%(2015), 4.1(2016*), 3.0(2017*)
1인당GDP (\$, PPP)	2,835(2009), 3,076(2010), 3,090(2011), 4,230(2012), 4,700(2013), 5,021(2014*), 5,046(2015), 5,334(2016*) 5,605(2017*)
실업률	6.4%(2009), 7.5%(2010), 6.7%(2011), 5.6%(2012), 5.1(2013), 3.9(2014), 4.9%(2015), 4.1%(2016*), 4.0(2017*)
물가상승률	0.4%(2009), 8.1%(2010), 7.8%(2011), 4.1%(2012), 5.2%(2013), 4.7%(2014), 13.6%(2015), 2.4%(2016), 7.8%(2017*)
화폐단위	Moldovan Leu (MDL로 표기)
환율	US\$ 1.0 = MDL 17.12 (2017.12.19 기준환율)
외채(백만 달러)	3,753(2009), 4,837(2010), 5,322(2011), 5,760(2012), 6,491(2013), 6,464(2014), 6,345(2015), 6,114(2016*), 6,476(2017*)
외환보유고(백만 달러)	1,480(2009), 1,718(2010), 1,965(2011), 2,515(2012), 2,821(2013), 2,157(2014), 1,757(2015), 2,206(2016), 2,300(2017*)
상품수출(백만 달러)	1,327(2009), 1,590(2010), 2,277(2011), 1,688(2012), 1,898(2013), 1,816(2014), 1,507(2015), 1,547(2016), 1,750(2017*)
상품수입(백만 달러)	3,276(2009), 3,810(2010), 5,146(2011), 4,755(2012), 5,037(2013), 4,857(2014), 3,630(2015), 3,635(2016), 4,130(2017*)
회계연도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 *는 예상치(작성 기준일: 2017.12)

자료원: 몰도바 통계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EIU(2017년 예상치), EIU

다. 한-몰도바 관계

외교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1.31. 외교 관계 수립 ○ 1993.1.30. 몰도바 주 우크라이나 대사관 겸임국 지정
------	--

<p style="text-align: center;">교역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교역실적(한국 관세청 통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수출: 421만 6,000달러(-3.2%) - 우리나라 수입: 1,224만 2,000달러(58.2%) - 무역수지: 802만 6,000달러 적자, 1,645만 8,000달러 ○ 2013년 교역실적(한국 관세청 통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수출: 909만 7,000달러(전년동기대비 115.8%) - 우리나라 수입: 1,163만 달러(전년동기대비 -5.0%) - 무역수지: 253만 3,000달러 적자 ○ 2014년 교역실적(한국 관세청 통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수출: 1,034만 7,000달러(전년동기대비 13.7%) - 우리나라 수입: 1,770만 4,000달러(전년동기대비 52.2%) - 무역수지: 735만 7,000달러 적자 ○ 2015년 교역실적(한국 관세청 통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수출: 540만 4,000달러(전년동기대비 -47.8%) - 우리나라 수입: 1,231만 7,000달러(전년동기대비 -30.4%) - 무역수지: 691만 3,000달러 적자 ○ 2016년 교역실적(한국 관세청 통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수출: 775만 4,000달러(전년동기대비 43.5%) - 우리나라 수입: 900만 4,000달러(전년동기대비 -26.9%) - 무역수지: 125만 1,000달러 적자 ○ 2017년(1월~11월) 교역실적(한국 관세청 통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수출: 752만 4,000달러(전년동기대비 9.3%) - 우리나라 수입: 826만 2,000달러(전년동기대비 -2.5%) - 무역수지: 73만 9,000달러 적자
<p style="text-align: center;">교역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물도바 수출: 승용차, 의약품, 기타플라스틱 제품 ○ 대물도바 수입: 편직제 의류, 직물제 의류, 주류, 가죽제가방 등
<p style="text-align: center;">투자교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8월 정보접근센터(전자정부) 설립 ○ 2014년 1월 금융위원회와 물도바 중앙은행 양해각서(MOU) 체결 ○ 2014년 6월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 물도바 정부에 지급결제시스템 수출
<p style="text-align: center;">교민</p>	<p>재외동포 87명, 고려인 현황 280명(외교통상부 발간자료 재외동포 현황)</p>

자료원: 물도바 통계청, 물도바 중앙은행, 외교부 국가 및 지역 정보

2. 정치·사회동향

가. 개요

몰도바 역사

고대의 몰도바 지역 거주민은 '다키안인'이었으나 로마와 뒤를 이은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몰도바 지역의 지리적 중요성으로 인해 고대부터 고트족, 훈족, 아바르족, 마자르족, 페체넥스족, 쿠만족 그리고 몽골족에 걸쳐 잦은 침략을 당했다. 1359년 카르파티아 산맥, 드네스트르 강, 다뉴브부터 흑해에 걸친 몰도바 공국이 건국됐다. 이 지역은 현재의 몰도바와 루마니아의 동쪽 8개 주,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역의 체르니우치 주와 부작 주에 이르는 지역이다. 1538년 오스만 제국의 속국이 됐으나, 고유의 문화와 일부분 형식적인 자치를 누릴 수 있었다.

1812년 체결된 부쿠레슈티 조약에 따라 몰도바는 동쪽 영토의 절반을 러시아 제국에 양도했다. 러시아는 이 지역을 '몰다비아와 베사라비아 주'라고 부르며 광대한 범위의 자치권을 허용했으나, 이는 1828년 폐지되고 러시아화가 시작됐다. 19세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인, 리포반인, 코사크인, 불가리아인, 독일인, 가가우지아인을 몰도바로 이주시켜 식민지화했고 유대인의 정착 역시 허용했다. 이에 따라 1816년 전체 86%에 이르던 몰도바인의 인구 비율은 1905년 전체 52%로 감소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18년에 루마니아의 영토로 편입됐으나, 1940년 소련의 영토가 돼 몰도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성립됐으며, 1991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했다. 그러나 1991년 11월 5일 티라스폴을 중심으로 한 드네스트르 강 동부 지역이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다비아 공화국의 성립을 선언했고, 1992년 3월부터 몰도바로부터 독립을 위한 전쟁을 치렀다. 이 분쟁은 그 해 7월, 총 1,5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채 러시아의 중재로 끝났다. 이후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사실상 독립했고, 이후 양측은 계속 갈등을 빚어오며 현재에 이르렀다.

소련 해체 이후 정치·사회

몰도바공화국은 1991년까지 소연방의 일원이었지만 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생긴 신생 독립국이다.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되기 이전 1990년 2월 몰도바에서 첫 민주선거가 실시됐다. 이 선거에서 의회 대변인으로 미르케아 스네규어(Mircea Snegur), 수상으로 미르케아 드루크(Mircea Druc)이 선출됐다. 이후 1990년 6월 23일 의회에서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몰도바 공화국'의 자주권을 선포했다. 1991년 12월 26일 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다른 국가들은 CIS(독립국가연합)에 가입했지만 몰도바는 가입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미국이 몰도바를 독립국으로 공식 인정하고, 1994년 나토의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프로그램(Partnership for Peace program)의 회원국이 됐다.

1992년 1월 2일 몰도바는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게 됐다. 갑작스러운 시장경제의 도입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낳고 대다수의 국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2009년 8월에는 4개의 몰도바 정당(자유 민주당, 자유당, 민주당, 우리 몰도바 동맹)이 의회에서 공산당을 축출하기 위해 연합했다. 이후 2001년부터 대통령직을 역임했던 블라드미르 보로닌(Vladmir Voronin)이 2009년 9월 11일 돌연 사퇴를 하면서 정국이 어려움에 봉착하지만, 2010년 12월 30일 마리안 루피(Marian Lupu)가 대통령으로 선출돼 다시 안정화됐다. 2013년 사회 연구조사기관 IMAS가 여론조사한 바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몰도바인은 자신들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조사됐다. 그리고 몰도바 전체 인구의 77%는 현재 국가의 발전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몰도바의 정치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정세

2012년 3월 몰도바 의회는 친유럽 성향의 니콜라에 티모프티 최고사법위원회 의장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니콜라에 티모프티는 정부의 친유럽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치러진 선거에서 101표 중 62표를 획득해 새 대통령으로 확정됐다. 몰도바는 2009년 친유럽 성향의 여당이 집권했으나 3년간 대통령 선출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대통령직을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던 상태였다. 2013년 4월 10일 몰도바 대통령 니콜라에 티모프티는 자유당 당대표인 블라드 필라아트를 총리로 임명하려 했으나, 입법부는 필라아트가 전 행정부 장관이었음을 문제 삼아 총리로 임명하길 거부했으며, 이어 티모프티 대통령은 전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유리에 링크를 총리로 임명하려 했으나 이 또한 의회의 기각으로 무산되면서 정치적 불안이 야기했다.

2013년 5월 30일 몰도바 의회는 상기와 같은 정쟁에 대한 EU의 비난을 의식했지만 유리에 링크를 총리로 임명했다. 하지만 EU의 비난이 거세지자 유리에 링크 총리는 2015년 2월에 사임을 하고 칠리 가브리치가 약 1년간 총리직을 수행했으며, 2016년 2월 20일부터 현재까지 파벨 필리프가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 9월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의 EU 준회원 협정 준비로 양국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 압박이 있었다. 일시적이었으나 러시아는 몰도바의 주요 수출품인 와인 수입을 금지하고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한 바 있다.

2014년 6월 27일 몰도바와 EU 간 포괄적 경제자유무역협정(DCFTA)을 체결한 데 이어 2016년 6월 1일부터 몰도바와 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됐다. EU는 2009년부터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등 옛 소련권 6개국과 협력 강화를 위한 '동부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동부 파트너십' 국가 간 정치 및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더 깊이 있고 포괄적인 자유 무역지대를 창설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시기	주요 내용
2000년 7월	헌, 대통령 의회 간선제 도입
2001년 2월	조기 총선 실시, 공산당 승리
2001년 4월	Voronin 공산당 당수, 대통령 선출
2005년 3월	총선 실시, 공산당 승리
2005년 4월	Voronin 대통령 재선
2007년 6월	지방선거 실시, 공산당 과반 획득
2008년 3월	그레케니 총리 임명
2009년 4월	총선 결과, 집권 공산당 과반 획득, 반정부 시위 발생
2009년 6월	의회 해산
2009년 7월	재총선 실시, 공산당 과반 득표 실패, 야당연합 정권 출범
2009년 9월	필라트 총리 임명
2010년 11월	조기총선 실시, 야당연합 과반 득표 실패
2010년 12월	루푸 대통령 대행 임명
2012년 3월	티모프티 대통령 당선
2013년 3월	필라트 총리 불신임 채택
2013년 4월	유리에 린카 총리 임명
2015년 2월	칠리 가브리치 총리 임명
2016년 1월	파벨 필립 총리 임명
2016년 12월	이고르 도돈 대통령 당선


나. 정치제도

몰도바의 정치시스템은 1994년 7월 29일 채택된 헌법에 따라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된 형태이다. 단원제인 의회와 행정부 이외에도 사법부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있으며,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삼권분립, 민주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94년 이후 2000년 7월까지의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됐지만 2000년 7월 개정된 헌법에 따라 간선제가 도입돼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됐다. 현재까지 2012년 3월 16일에 선출된 니콜라에 티모프티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4년에 한 번씩 의회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2016년 11월 대선에서 '사회주의자당' 당수 이고르 도돈이 당선됐고, 2017년 3월에 취임했다.

대통령과 행정부

몰도바 대통령은 4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며 총리를 임명할 권한이 있다. 총리는 대통령이 당선된 후 15일 이내에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후 의회에서 임명 찬반선거가 실시된다. 몰도바 헌법에서 대통령은 의회의 간접선거로 선출되나, 2016년 11월 30일 20년 만에 직접선거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몰도바 대통령과 총리

직위	인물	재임기간	정당
대통령	 이고르 도돈(Igor Dodon)	2016. 12. 23. ~ 현재까지	무소속

총리	 <p>파벨 필리프(Pavel Filip)</p>	2016. 2. 20 ~ 현재까지	민주당
----	--	--------------------------	-----

역대 대통령

대수	인물	임기 기간	소속당
1	 <p>미르체아 스네구르 (Mircea Ion Snegur)</p>	1990년 9월 3일~1997년 1월 15일	무소속
2	 <p>페트루 루친스치(Petru Lucinschi)</p>	1997년 1월 15일~2001년 4월 7일	물도바 농민당
3	 <p>블라디미르 보로닌 (Vladimir Voronin)</p>	2001년 4월 7일~2009년 9월 11일	공산당
권한 대행	 <p>미하이 감푸(Mihai Ghimpu)</p>	2009년 9월 11일~2010년 12월 28 일	자유당 (유럽통합연합)
권한 대행	 <p>블라드 필라트(Vladimir Filat)</p>	2010년 12월 28일~ 2010년 12월 30일	자유당 (유럽통합연합)
권한 대행	 <p>마리안 루푸(Marian Lupu)</p>	2010년 12월 30일~2012년 3월 16 일	민주당 (유럽통합연합)

4	 니콜라에 티모프티(Nicolae Timofti)	2012년 3월 16일~2016년 12월 23일	무소속
5	 이고르 도돈(Igor Dodon)	2016년 12월 23일~현직	무소속

의회와 입법부

몰도바 의회는 총 101석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원 임기는 4년이다. 몰도바가 간선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의원 6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의회는 5개 정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단원제이다.

- 몰도바 공화국 공산당(PCRM): 블라드미르 보로닌(Vladimir Voronin)
- 민주당(PD): 마리안 루피(Marian Lupu)
- 자유 민주당(PLDM): 블라드미르 필라트(Vladimir Filat)
- 자유당(PL): 미하이 김푸(Mihai Ghimpu)
- 자유개혁당(PLR): 이온 하다르사(Ion Hadarca)
- 친유럽 연합당(Pro-European Coalition): 민주당(PD), 자유민주당(PLDM)과 자유개혁당(PL)의 연합 형태

2014년 11월 30일 몰도바 총선에서 인구의 56%가 투표를 포기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 총선에서는 친유럽 연합당(Pro-European Coalition)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데, 전체 의석의 45%인 101석을 확보했다. 이 중 자유민주당(PLDM)은 전체의 20.16%인 23석, 민주당(PDM)은 15.18%인 19석, 자유당(PL)은 9.67%인 13석을 차지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친유럽 연합당(Pro-European Coalition)의 승리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몰도바 공화국 공산당(PCRM)이 전체의 20.51%인 25석을 점하게 되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당이라 할 수 있게 됐다.

사법부

몰도바에서 고등법원으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6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법원은 대법원장, 차장 판사 3명, 일반 판사 45명, 보조 판사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 밖에 하위 법원으로는 상소법원, 지방법원, 상법을 담당하는 비즈니스 감사법원(Court of Business Audit)이 있다.

다. 국제 관계 전망(EU,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이후 신생 독립국으로 탄생한 몰도바의 주요 대외 정책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1995년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당사국들에 의해 인정받았으며, 더 나아가 나토(NATO)의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프로그램(Partnership for Peace program)에 참가하게 됐다. 또한 UN, 유럽 안보협력기구(OSCE), 나토협력이사회(North Atlantic Cooperation Council),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그리고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회원국이 됐다.

2005년에는 몰도바와 EU 간에 주변국(루마니아, 우크라이나)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액션 플랜이 발효됐다. 이후 유럽연합 국경지원단(EUBAM)에서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간의 통관절차의 유럽식 기준 확립과 국경 근처의 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몰도바 의회에서는 1994년 4월 CIS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을 위한 헌장을 승인하지만, 중립국 지위로서 군사적 협력은 하지 않고 있다.

1998년에는 조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국가들과 함께 구암(GUAM)을 창설했다. 비록 GUAM 합의서에서 공동 방위를 선언했지만 실질적으로 몰도바는 공동 방위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 몰도바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의 군대 철수에 대한 협정을 맺었지만 러시아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 자국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3. 한국과의 주요 이슈

가. 개요

몰도바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다. 한국과는 1992년 1월 31일, 북한과는 1992년 1월 30일에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었다. 수교 이래 몰도바와 지속적인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몰도바 외무부는 2014년 1월 23일 한국 6개월 내 90일 기준으로 무사증 입국조치를 허가했다. 그러나 몰도바 국민은 한국 방문 시 아직까지 사증 발급이 필요하다.

한편, 대한민국과 몰도바 양국 모두 상주 공관을 두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의 경우 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몰도바의 경우 주일본 몰도바 대사관에서 관할하고 있다.

나. 한국과의 관계

남한과의 관계

- 외교관계 수립: 1992년 1월 31일
- 공관장 현황(상호 비상주)
 - 한국 측: 이양구, 주 우크라이나 대사 겸임
 - 몰도바 측: Bumachov Vasil, 주 일본 대사 겸임
- 한-몰도바 교역 현황 (2017년, 한국 무역협회 통계 기준)
 - 수출: 8,589,656 달러
 - 수입: 8,825,339 달러
- 한-몰도바 주요 교역 품목 (2017년, 한국 무역협회 통계 기준)
 - 수출품: 자동차, 의료용 기기, 고무제품 등
 - 수입품: 의류, 가방, 신발 등
- 교민 현황 (2017년 기준)
 - 재외국민: 14명
 - 고려인 동포: 70명
- 주요 인사 상호방문 현황
 - 1993년 10월 코쉬코단 부총리, 보트나루 외교차관(대전엑스포 참관 계기)
 - 1997년 11월 카시안 체신부장관
 - 2008년 1월 Timciuc 대사(신임장 제정 계기)
 - 2011년 11월 필립 정보통신부장관
 - 2012년 2월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
 - 2012년 7월 로니타 국회 경제예산재정위원장, 브마코프 농업식품부장관
 - 2012년 8월 서필언 행안부 제1차관
 - 2012년 9월 김성한 외통부 제2차관

북한과의 관계

- 외교관계 수립: 1992년 1월 30일
- 몰도바-북한 교역규모(2017년)
 - 대북 수출: 최근 3년간 대북 수출 전무
 -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17년 33천 달러 수입,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HS5407)' 수입이 대부분 차지

다. 양국 주요 현황

고려인 문제

구소련 시대에 약 300명의 고려인이 거주했으나 1990년대 초 구소련의 해체와 동시에 몰도바가 독립하고 경제가 어렵게 돼 대부분 고려인이 선진국으로 떠나고, 현재 약 70명의 고려인이 어렵게 살고 있다.

한국문화센터 설립

2008년 몰도바에서 유명한 자유국제대학교(ULIM) 내에 한국문화센터가 설립됐고, 자유국제대학교에는 2010년 9월부터 한국어 강좌가 개설됐다. 현재 약 40명의 대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어 교과서와 한국어로 된 서적, 사물놀이 용품 등을 한국문화센터에 지원해주고 있다. 아울러 2012년 11월 15일에는 수교 2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는데, 한국-몰도바 문화교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센터로 발돋움했다.

한국과 전자정부 협력 현황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몰도바에 2012년 8월 정보접근센터가 개설됐다. 정보접근센터는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가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축해 주는 최신의 IT 시설로, 인터넷 라운지·정보화 교육장·세미나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정보접근센터는 이용자의 대다수인 대학생·공무원들이 장차 개도국을 이끌어갈 현지 엘리트로서, 이들이 센터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선진 IT와 문화를 접할 수 있어 IT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정부 간 협력

- MOU: 2012년 8월 14일(행안부-몰도바 정보기술통신부, 정보화 협력)
- 고위급 회담: 2011년 11월(행안부 고위급 초청연수, 서울)
- 해외 IT전문가 초청연수: 87명(1998~2013년)
- 한-몰도바 전자정부 마스터 플랜 수립 세미나 개최(2012년 3월 1일, 몰도바)
- 정보접근센터 구축: 2012년 8월 14일
- 대한민국 IT 봉사단 파견: 20명(2013년)
- 교육용 컴퓨터 150대 지원: 2017년 7월 21일

한국 IT 수출 및 활동

○ IT 수출

- 전자지급결제 컨설팅(2011년, 10만 달러, 대우정보시스템)

○ 기타 활동

-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EDCF 요청 진행(2013년 6월, 1,000만 달러 규모)
- 몰도바 대학 정보망 구축사업 참여 협의 중(2012년 12월, 10만 달러)
- 세계보건기구: 한국 의료 솔루션 추천(2012년 7월)

금융위원회, 몰도바 중앙은행과 양해각서 체결

2014년 1월 금융위원회는 몰도바 중앙은행과 금융협력에 관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한국의 경제발전 노하우를 전수하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 활성화와 금융인프라 수출에 대한 협력이 주 골자로 체결됐다. 기존의 동남아 신흥국 위주로 형성된 금융인프라 수출이 동유럽지역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형 지급결제 시스템 대몰도바 수출

2014년 6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한국형 지급결제시스템을 몰도바에 수출하는 프로젝트 '트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해외에서 발주한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사업을 국내 기업이 수주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수출 건은 국가 요청에 의해 지급결제시스템을 수출하는 첫 사례이다. 시스템 구축 사업은 약 2,00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향후 동유럽 시장에 한국형 지급결제시스템 수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 한국의 ODA 지원 현황

우리나라의 대 몰도바 ODA 지원 현황

(단위: 백 만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규모	36	226	156	241	478	184	342
----	----	-----	-----	-----	-----	-----	-----

자료원: KOICA ('18.7월 확인 가능 최신자료)

○ 대 몰도바 EDCF 지원: 없음

II. 경제

1. 경제지표 DB

지표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대내 경제	경제성장률	%	-0.4	4.3	4	3.7
	1인당 GDP	US\$	1,828	1,907	2,240	2,457
	명목 GDP	US\$백만	6,785	6,534	6,718	-
	소비자물가상승률	%	9.6	6.4	6.5	5.3
	실업률	%	4.9	4.2	4.1	4.1
대외 경제	수출실적	US\$백만	1,507	1,547	1,780	1,950
	수입실적	US\$백만	3,595	3,604	4,010	4,230
	무역수지	US\$백만	-2,088	-2,057	-2,230	-2,280
	총외채	US\$백만	6,402	6,465	7,008	7,307
	외환보유고	US\$백만	1,754	2,230	2,300	2,400
	이자율	%	14.2	14	13.5	-
	환율	US\$	18.8	19.9	18	15.6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물도바 통계청 ('18.7월 확인가능 최신자료)

2.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개요

몰도바는 동유럽 최빈국에 속하는 국가로 1인당 GDP가 2017년 기준 2,240달러에 불과하다. 인구도 350만에 불과해 내수시장이 작은 편이다. 전형적인 농업국가에 속하는 몰도바는 전체 산업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2.2%로 낮은 편이나, 전체 노동 인구의 32.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그 해 작황 수준이 몰도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

다른 구 소련 국가와 마찬가지로 몰도바 역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2014~2015년 당시 원유 가격 하락에 따른 러시아의 경기 침체로 몰도바도 영향을 받아 한 때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바 있다. 또한 몰도바는 에너지 분야에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은 절대적인데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지하자원이 없어 러시아산 에너지 자원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몰도바에 친 EU 내각이 구성되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 경제 성장률

몰도바 경제는 2000년대 들어 크게 2번의 부침이 있었는데, 주로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5년부터 본격화된 러시아의 경기 침체, 몰도바-러시아 관계악화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세 경험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를 제외하면 4% 내외의 견실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18년에도 3%대 후반의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 몰도바 국가 신용 등급

몰도바의 국가 신용등급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자체 신용등급 평가에서 최하위 신용도인 E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OECD에서도 7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몰도바 동부에 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 지역이 위치해 있고, 몰도바 내부 정치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수출입은행	OECD	S&P	Moody's	Fitch
E	7	-	B3	-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18. 7월 확인 가능 최신자료)

3. 주요 산업동향

가. 개요

몰도바 산업별 GDP 비중

농업	12.2%
제조업	14.6%
서비스산업	73.2%

자료원: CIA World Factbook ('18.7월 확인 가능 최신자료)

나. 산업생산 통계

구분	산업생산지수(%)	
	2016	2017
총계	100.9	103.4
광업	84.2	96.3
제조업	101.8	104.5
- 식품	101	106.4
- 음료	94.6	107.8
직물	131.8	93.5
의류 및 모피	115.1	102.3
피혁	110.1	98.4
목재	150.2	111.4
제지류	121.7	94.7
화학	117.2	94
고무와 플라스틱	94.5	116.4
기타 비금속 광물	91	103.5
야금	89.4	106.3
철강	103.9	103.6
기계 및 설비	102.6	95.9
전자기기	82.6	139.4
컴퓨터 및 정밀 광학기기	92.4	89.9
가구	127.5	99.8
전기, 난방	99	98.3

주: 100 이상이면 플러스 성장, 100 이하면 마이너스 성장

자료원: 몰도바 통계청 ('18.7월 확인 가능 최신자료)

나. 주요 핵심산업

1) 농림수산물

몰도바는 비옥한 토지를 비롯해 유기농 제품을 생각하는데 최적화돼 있다. 농업분야는 전체 GDP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선진농업기술에 대해서는 취약한 상태이다. 몰도바 영토의 75%는 농지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작물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70% 정도를 차지하는데, 견과류와 꿀 시장은 점유율은 국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밀, 보리, 옥수수, 콩의 생산량은 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유기농식품 시장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Südzucker AG(몰도바, 독일 합작 설탕회사)



자료원: 몰도바 투자청

Südzucker AG는 몰도바와 독일의 합작 설탕 생산회사로 유럽에서 가장 큰 설탕 생산회사이다. 이 회사는 2001년에 설립해 현재 3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 시장의 3대 브랜드 회사로 성장했다. 연간 설탕 생산량은 약 5억 3,500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

2) 자동차/수송기기 - 자동차

몰도바 자동차 산업은 구소련으로부터 독립 이전까지 몰도바 전체 GDP의 60%를 차지할 만큼 핵심 산업이었다. 독립 이후 경제 악화로 관련 산업 생산량은 일시적으로 저하됐지만, 현재는 산업 지향적 교육시스템을 바탕으로 생산량을 빠르게 회복 중이다. 빠르게 회복 중인 자동차 산업은 2012년 1억 8,000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출액을 기록했으며, 이는 몰도바 전체 수출액의 8.3%에 해당된다.

몰도바 자동차 부품 공장



자료원: 몰도바 투자청

몰도바 자동차 산업의 장점은 구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우수한 기술뿐만 아니라 인건비 대비 능숙한 숙련공들이 많다는 점이다. 몰도바인의 평균 월 급여는 217유로로 중국(394유로), 루마니아(384유로)보다 훨씬 적다. 값싼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산업 지향적 교육시스템 덕분에 엔지니어의 생산력은 높은 편이며 대다수의 엔지니어들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은 해외 투자자들로 하여금 몰도바에 생산공장을 짓게 하는 주요 요인이지만, 아직까지 몇몇 잔재된 소비에트식 비효율적인 행정처리는 투자자로 하여금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3) IT - 정보통신기술

2000년 이후 몰도바에서 각광받는 산업분야 중 하나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이다. 정보통신기술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몰도바 투자청에서 지정한 6대 유망산업 중 하나이다. 몰도바 투자청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12년 관련 산업 생산량은 70억 몰도바 레우(2015년 4월 30일 기준, 약 3억 8,000만 달러)로 기록됐으며, 이는 전체 GDP의 8.9%에 해당된다. 특히 해당 산업 중 소프트웨어 분야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07년에서 2013년 사이 소프트웨어 수출규모는 4배 증가했다.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급격한 발전은 2가지 요소가 주요 원동력이다. 첫 번째는 우수한 인재가 많다는 점이다. 해마다 해당 산업과 유관된 대학교, 연구소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3,000명의 인재가 배출되며 이들은 우수한 기술 보유자일 뿐만 아니라 영어, 루마니아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다국어 능통자들이다. 두 번째는 정부의 꾸준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돼 있다. 몰도바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산업 진흥을 위해 정책적 어젠다를 결의했으며, 외국 ICT 업체들이 몰도바에 진출할 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 2가지 요소는 몰도바 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에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몰도바, 영국, 루마니아 업체들의 합작회사인 Endava 그룹 등이 있다.

4) 의료바이오 - 의료

몰도바는 의료 복지 여건상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넓다.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을 제외한 내국인들은 응급 치료 이외에 무상진료 혜택

을 누릴 수 없으며, 동네마다 위치한 일반의(GP)의 수와 개인병원 숫자는 적은 편이다. 따라서 환자들은 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자주 찾는 경향이 있다. 또한, 몰도바 내에 1만 5,700명에 달하는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의료진과 자본을 바탕으로 의료산업 진출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이다.

Medpark International Hospital 내부



자료원: Medpark International Hospital

대표적으로 몰도바 의료산업에 진출한 사례는 SUMMA 그룹 사가 설립한 Medpark International Hospital이다. Medpark International Hospital은 키시네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 의료진료 이외에 입원시설, VIP서비스, 응급의료 서비스 등을 갖추고 있다. 한 곳에서 여러가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5) 광물/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몰도바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다. 몰도바는 2012년 '몰도바 2020 개발전략'을 발의해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주거, 산업, 교통, 농업 분야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 중이다. 대내적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EU로부터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몰도바 재생에너지 자금 기관(MoSEFF)'을 설립해 해외 유관업체들과 협상 중이다.

몰도바에서 현재 진행 중인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Mercado Green Technology(스위스)사가 미생물 등을 이용해 연료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투자금액은 약 2,500만 유로로 알려졌으며 드로치아(Drochia)주의 트사리그라드(Tsarigrad)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다.

6) 섬유/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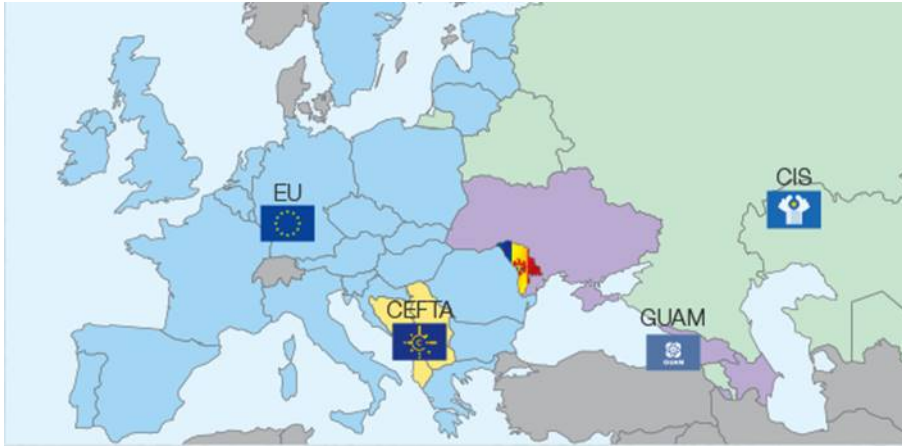
몰도바는 구소련 연방국가 중 EU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과 EU에 비해 값싼 노동력은 몰도바에서 경공업이 발달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 특히 경공업 중 2차대전 이후부터 몰도바 지역에는 섬유, 의류, 가죽, 신발 생산산업 등이 발달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관련 산업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현재 몰도바 내에는 300여 개의 관련 산업 기업이 있으며, 기업들은 EU와 CIS국가들과 체결된 무역협정을 통해 값싸게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4.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개요

몰도바는 2001년 7월 21일 CIS 국가 최초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래 CIS 국가는 물론 유럽 국가들과 활발한 관계를 맺고 있다. CIS 국가들과는 전통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EU와는 연합협정을 체결해 EU 가입을 위한 액션을 취하고 있다. 또한 발칸 반도에 위치해 있으나 EU 회원국인 아닌 중부 유럽 국가들과도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FTA)을 체결해 무역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몰도바 지역협정 체결국 현황 (그림)



자료원: MIEPO

나. EU-몰도바 FTA (DCFTA)

2014년 6월에 체결된 EU-몰도바 연합협정의 일환으로 체결된 EU-몰도바 간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은 2016년 7월부터 완전 발효되었다. 유럽연합은 몰도바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로 전체 수출의 약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CIS 역내 자유무역협정

몰도바는 1994년 CIS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지금도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 CIS 역내 회원국간 양자 간 체결했던 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CIS 역내 자유무역협정'은 2012년 발효된 이래 현재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몰도바, 아르메니아 8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라. 구암(GUAM)

1997년 옛 소련연방국가 중 반러시아적 정서를 가진 국가들(조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우즈베키스탄) 민주적 가치를 기초로 한 시장 경제 활성화와 무역 증진을 위해 구암(GUAM)을 창설했다. 창설 당시 우즈베키스탄도 가입했지만, 회원국 간 정치적 갈등으로 2006년 3월 탈퇴했다. 이후 대내외적으로 점차 와해돼 지금은 유명무실한 기구가 됐다.

마. 중부 유럽 자유무역협정(CEFTA)

중부 유럽 자유무역협정은 중부 유럽 국가들부터 남동부유럽 국가들까지 참여하는 무역협정으로 EU 회원국 외 국가들이 참가하고 있다. 몰도바는 2006년 협정을 체결하여 2007년 몰도바-CEFTA가 정식 발효되었다. 현재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마케도니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코소보 6개 회원국이 활동 중이다.

바. 흑해 경제 협력기구(BSEC)

흑해 연안국의 무역 및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1992년에 결성됐다. 창설 초기에는 활발한 활동을 했으나, 터키와 그리스 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현재는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몰도바, 터키,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세르비아 등 총 12개국이 가입했으며, 인구 3억 명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시장이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몰도바 무역통계

2014년~2017년 몰도바 무역 통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출	2,339	1,967	2,045	2,425
수입	5,316	3,987	4,020	4,831
수지	-2,977	-2,020	-1,976	-2,406

자료원: 몰도바 통계청 ('18.7월 확인 가능 최신자료)

나. 국가별 수출입 통계

2017년 몰도바의 국가별 수출입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수지
합계	2,425	4,831	-2,406
루마니아	601	695	-94
이탈리아	248	332	-85
벨라루스	110	115	-5
독일	166	391	-224
터키	104	304	-200
러시아	255	572	-317
영국	136	57	79
프랑스	51	113	-62
카자흐스탄	17	2	15
폴란드	103	166	-63
체코	30	68	-38
인도네시아	5	6	-0.6
우크라이나	66	511	-446
미국	19	70	-51
오스트리아	41	80	-39
불가리아	78	74	4
그리스	29	26	4
세르비아	11	18	-7
레바논	8	0.6	-7
중국	19	505	-486
네덜란드	28	48	-20
이집트	1	9	-8
키프로스	8	1	7
일본	1	38	-36
슬로바키아	10	24	14
스위스	44	32	12

구분	수출	수입	수지
합계	2,425	4,831	-2,406
한국	0.3	26	-26

자료원: ITC Trade map ('18.7월 확인 가능 최신자료)

다. 품목별 수출입 통계

2017년 몰도바의 주요 수출품(Top 10)

(단위: 천 달러, %)

구분	수출액	비중	증감률
합계	340	0	13
와인류	117	0	14
목공품	42	5	0
제과류	42	0	0
직물류(카펫)	34	0	0
특수의복	26	4	0
물과음료	23	1	0
목재류(마루바닥용)	19	4	-25
천연꿀	15	0	0
식초류	7	2	0
직물류(실)	5	1	0

자료원: ITC Trade map ('18.7월 확인 가능 최신자료)

2017년 몰도바의 주요 수입품 (Top 10)

(단위: 천 달러, %)

구분	수입액	비중	증감률
합계	26,060	1	-11
자동차	6,958	5	-10
철 또는 비합금강 제품	5,595	19	-15
자동차 공기 타이어	1,219	3	-21
의료기기	1,214	11	0
합성직물	840	3	12
자동차 부품품	816	2	8
트랙터	727	1	31
도기용 인쇄기계	586	7	-4
의약품류	442	0	9
니트류직물	416	1	-19

자료원: ITC Trade map ('18.7월 확인 가능 최신자료)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한-몰도바 수출입 동향

한-몰도바 무역 교역액 추이
(단위: 천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1-6월)
총 교역	28,051	17,721	16,758	17,415	10,962
수출	10,347	5,404	7,754	8,590	6,059
수입	17,704	12,317	9,004	8,825	4,903
수지	-7,357	-6,913	-1,250	-235	1,156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18.7월 확인 가능 최신자료)

한국의 대 몰도바 주요 수출품 (Top 10)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코드 (MTI)	품목명	2017년		2018년(1-6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8,590	10.8	6,059	51.8
1	7411	승용차	3,700	-13.4	2,793	28.7
2	7311	의료용 기기	1,331	73.7	1,146	93.7
3	3203	타이어	869	135.5	484	43.9
4	8147	의료용전자기기	195	-22.5	401	641.7
5	2273	화장품	178	62.6	289	404.3
6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251	80.7	157	-36.7
7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40	73.6	135	525.2
8	7420	자동차부품	125	-54.8	102	0.0
9	4490	기타섬유제품	139	-9.1	91	268.2
10	9509	기타의료위생용품	108	179.3	72	38.6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18.7월 확인 가능 최신자료)

한국의 대 몰도바 주요 수입품 (Top 10)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코드 (MTI)	품목명	2017년		2018년(1-6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8,825	-2.0	4,903	66.5
1	4412	직물제의류	4,382	-4.7	2,187	141.6
2	4411	편직제의류	2,182	-1.3	1,246	33.3
3	5113	가방	462	-7.6	505	53.2
4	5212	신발	1,188	44.7	461	6.9
5	4413	혁의류및기타	291	-29.7	133	-36.5
6	0157	주류	83	-13.5	95	91.6
7	8421	제어용케이블	2	-14.0	58	6,216.4
8	4490	기타섬유제품	61	-7.7	44	2,444.1
9	0131	식물성유지	0	0.0	32	0.0
10	0163	빵	20	416.3	22	78,525.0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18.7월 확인 가능 최신자료)

나. 한-몰도바 무역 특징

한-몰도바 전체 교역액은 2017년 기준 1,700만 달러로 그 규모가 매우 작다. 아직까지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아니기도하고, 몰도바의 경제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의료용 기기들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몰도바에서는 의류 및 기타 잡화류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3. 수입규제제도

몰도바가 점차 시장 친화적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관세에서 많은 개혁을 하고 있다. 이는 기존 사용하고 있던 몰도바 관세코드를 교토협약에서 맺어진 국제 표준에 맞게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전체 개혁 70% 가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된 품목은 세관 지역에서 수입자의 지불 여건이 충족돼야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진다. 수입자의 해당 충족 여건은 다음과 같다.

- 관세율 따른 수입관세, 부가가치세(VAT), 세법에 따른 소비세, 관세 수수료, 면허 사용료

일부 특정 국가에서는 특혜관세가 적용되는데, 특혜관세 분량은 한계가 있다. 수입자는 반드시 당국에 관련 서류를 완벽히 제출해야 하며, 물품을 배송할 때에는 제품마다 세관신고 및 제품 관세 지불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4. 관세제도

가. 개요

몰도바 재정부에 따르면 몰도바의 평균 관세율은 5.7%라고 한다. 모든 관세 납부는 자국화폐인 몰도바 레우로 납부해야 하며, 몰도바 국립은행(NBM)의 고시환율(변동환율)에 의거한 관세가 적용된다.

납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관세율에 따른 수입관세
- ② 부가가치세(VAT)
- ③ 세법에 따른 소비세
- ④ 관세 수수료
- ⑤ 면허 사용료

몰도바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교역 관세는 일반 관세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세금이 책정된다.

- ① 각 물건들의 거래가치 혹은 실질가격
- ② 유사 상품들의 거래가격
- ③ 동일 상품들의 거래가격
- ④ 상품의 단가
- ⑤ 이전 통관 신고가격
- ⑥ 통관 기준가

주로 상기 ①의 방법으로 세금이 책정되며, 상위 항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순차적인 하위 방법으로 책정된다.

5. 시장 특성

가. 개요

몰도바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라 할 수 있다. 몰도바의 지리학적 위치와 온화한 대륙성 기후가 그 배경인데, 몰도바의 날씨는 인접국(우크라이나)보다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겨울이 짧고 더운 여름이 길어 농산물이 집중적으로 자랄 수 있는 요건이다. 온화한 기후와 더불어 흑토, 숙련된 농부들이 많다는 점도 그 배경이다. 특히 농업분야 중 와인 제조업은 몰도바의 핵심산업으로, 전체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몰도바 산업구조가 농업을 기반으로 한 노동집약형인 만큼, 해외 인력 수출에 의한 외화벌이가 국가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몰도바의 교역은 전체 GDP의 7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량은 지난 10년 동안 3배 증가해 2013년 기준 23억 9,900만 달러(대EU: 11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액은 지난 10년 동안 4배 증가해 2013년 기준 54억 9,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수출 항목

수출 항목	특징
통조림식품류	몰도바의 대표적인 농식품 분야. 대표적으로 과일주스, 유아식, 잼 등이 있음.
건조식품류	자두, 사과, 체리 등을 말린 제품. 주로 EU시장 수출
급속냉동식품류	야채, 감자, 토마토 등을 급속 냉동시킨 제품. 에코프로드 로스몰(Ecoprod Rosmol), 알파 니스트루(Alfa Nistru), 나투르 브라보(Natur Bravo) 등의 회사가 대표적
신선식품류	몰도바 내에서 상당한 양의 신선한 과일 및 야채가 재배돼 이를 기반으로 함.

나. 와인의 나라, 술 소비량 1위국 몰도바

2011년 미국 경제전문 CNBC 방송이 지난해 발표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TOP 15'에 따르면, 몰도바 사람들이 한 해 평균 1인당 18.22L의 술을 마셔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1위로 선정됐다. 몰도바는 농업국으로 포도 재배를 많이 하고 있으며 와인 제조도 활발하다. 구 소련연방 시절 연방 전체 와인 생산량의 1/30은 몰도바에서 생산됐다. 몰도바의 기후는 대륙성이지만 흑해와 인접해서 여름이 길고 따뜻하고, 겨울은 온화해 포도농사에 아주 좋다. 몰도바 와인의 역사는 4000년에서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긴 역사를 자랑한다. 2012년 와인 수출액은 전년대비 87% 증가했다.

다. 소비자 특성

몰도바인은 서유럽인처럼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신중하고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지만 사람들의 생활은 대체로 안정되고 자유로우며 정신적 욕구를 더 중시한다. 몰도바는 1인당 GDP는 낮지만 소비지수는 아주 높다. 독일, 프랑스에서 50유로면 살 수 있는 신발을 이곳에서는 100유로를 넘게 받는다. 이런 고물가로 몰도바 사람들은 흔히 다른 나라에 가서 쇼핑을 즐긴다.

6. 바이어 발굴

가. 상공회의소 연락처

○ 대표 연락처

- 주소: MD-2012, vul. Stefan cel Mare, Chisinau , Moldova
- 전화: (373-22) 221-552
- 팩스: (373-22) 234-425
- 메일: camera@chamber.md
- URL: <http://chamber.md/>

○ 전시회 및 박람회 담당부서

- 전화: (373-22) 238-410
- 팩스: (373-22) 210-725
- 메일: expo@chamber.md
- 대표자: 마리나 페트로바(Marina Petrova)

○ 국제 상사 중재 부서

- 전화: (373-22) 235-228
- 팩스: (373-22) 221-425
- 메일: arbitraj@chamber.md
- 대표자: 드미트리 포스토반(Dumitru Postovan)

○ 외국 협력 부서

- 전화: (373-22) 235-332
- 팩스: (373-22) 221-391
- 메일: foreign@chamber.md
- 대표자: 미하이 빌바(Mihai Bilba)

○ 직업 교육 센터

- 전화: (373-22) 332-286
- 팩스: (373-22) 352-294
- 메일: training@chamber.md
- 대표자: 빅토리아 코트시(Victoria Cotci)

7.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개요

몰도바도 EU 가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이나, 아직까지는 소비에트식 관료 및 비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에트 붕괴 이후 세대로는 이러한 소비에트식 자본주의를 탈피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e-정부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상거래 시 소비에트식 관료주의 외에 또 다른 문제는 저임금에 의한 부패인데, 특히 공정거래를 회피하고 탈세 및 암거래를 일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몰도바에서 상거래를 위한 인맥 쌓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몰도바 비즈니스는 유럽 지향적인 동시에 현대적 틀을 활용하는 것이 트렌드이다. 두 번째는 몰도바 문화와 언어의 이해도를 넓히는 것이다. 여러 인접국의 속국이었다는 트라우마는 있으나, 현 시점으로 볼 때 개발도상국이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는 루마니아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8.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전시회명	개최 일정	장소	산업 분야
FARMER 2018	2018.10.17 ~ 2019.10.20	몰도바 박람회장 (MOLDEXPO)	농산물
SECURITY MOLDOVA 2018	2018. 9 예정	몰도바 박람회장 (MOLDEXPO)	보안 시스템
MOLDOVA FASHION EXPO 2019	2019. 10 예정	몰도바 박람회장 (MOLDEXPO)	패션
BEAUTY MOLDOVA 2019	2019. 3 예정	몰도바 박람회장 (MOLDEXPO)	미용제품
TOURISM. LEISURE. HOTELS. 2019	2019. 2. 07 ~ 2019. 2. 10	몰도바 박람회장 (MOLDEXPO)	관광, 레저 및 호텔
FOOD & DRINKS - FOOD TECHNOLOGY MOLDOVA 2019	2019. 5. 16 ~ 2019 5. 20	몰도바 박람회장 (MOLDEXPO)	식음료
PACKAGING. DEPOT MOLDOVA 2019	2019. 5. 16 ~ 2019. 5. 19	몰도바 박람회장 (MOLDEXPO)	포장기술 및 자재
KID'S EXPO 2019	2019. 5 예정	몰도바 박람회장 (MOLDEXPO)	유아 의류 및 장난감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개요

몰도바는 남동부 유럽, 발칸반도 북부 끝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우크라이나, 루마니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작은 내륙 국가이다. 전통적인 농업 국가로 CIA Worldfact book('18.7월자)에 따르면 몰도바 전체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만 전체 노동 인구의 32.3%에 달해, 그 해 작황에 따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주요 농업 생산품으로는 곡물, 과일, 채소, 와인, 담배 등이 있다. 한편 제조업은 전체의 14.6%, 서비스업은 73.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리적으로 CIS국가와 유럽을 연결할 수 있는 길목에 위치해 있으며, 다뉴브 강 하구에 위치한 항만 시설을 이용하면 흑해를 통한 해상 교역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몰도바 정부가 유럽과 관계 강화를 선언하면서 관세 및 각종 세제를 EU식 제도에 가깝게 바뀌어나가고 있으며, 고숙련 노동자의 인건비 또한 매우 싸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아직까지 몰도바 정부 차원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몰도바 국내에 위치한 산업공단 10곳, 자유경제구역(FEZ) 7곳을 통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몰도바 투자수출진흥기구인 MIEPO 홈페이지 'www.miepo.md'를 통해 확인 가능)

그러나 1인당 GDP 2,596달러의 동유럽 최빈국이라는 이미지와 분쟁 국가(몰도바 동부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는 친 러시아 성향의 별도 국가가 들어서 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라는 악재는 외국 투자자가 대 몰도바 투자를 꺼리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 외국인 투자동향

가. 개요

몰도바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정보는 현재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접근이 쉽지 않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몰도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여파로 한때 외국인이 선호하지 않는 나라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후 경제가 점차 안정을 되찾으면서 2013년에 이르러 FDI 유입 금액만 348.1백만 달러에 달하게 됐다. 몰도바에 유입되는 투자 금액 중 절반 이상이 금융 자본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일명 주고받기식 거래(Round-tripping)가 흔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대몰도바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연도	투자 금액 (FDI inward)	FDI 잔액(FDI Stock)
2014년	343	3,292
2015년	227	2,927
2016년	84	2,978
2017년	214	3,647

자료원: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8 ('18.7월 확인 가능 최신자료)

다. 외국인 투자자 법

- 몰도바 외국인 투자자의 요건
 - 시민권 및 기업 활동 이행을 위한 (영구)거주지가 있는 국가에 등록된 외국의 개인, 법인 및 그 제휴사
 - 기업 활동의 이행을 위해 거주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않은 외국의 개인
 - 몰도바 공화국 시민 및 몰도바 외부에서 영구적으로 생활하며,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 영구 거주지가 있는 국가에 등록된 시민권이 없는 개인
- 외국인 투자 가능 대상
 - 몰도바 공화국 은행에서 구입해 금융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화 또는 인정된 다른 통화
 - 사무기기, 원료 및 물자를 포함한 기계, 장비(1988년 2월 11일, 법 1488-XIII)
 - 지적(산업) 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자산 및 비자산권(자산권, 원산지권, 저작권, 샘플, 산업 샘플, 상업 라벨, 상호, 제품 및 상업상 비밀, 기술, 노하우 등)(1994년 7월 27일, 법 No 197-XIII에 의해 완료)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정
 - 외국인 투자는 국가 안보, 반독점법 규정, 환경 보호, 국민 건강과 사회 질서, 도덕 규범에 관한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몰도바 공화국의 모든 경제 분야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몰도바 공화국이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활동 및 이들의 활동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분야는 몰도바 공화국 법에 따라 규정함.
-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 기업의 공공자본 형성 및 증가를 목적으로 현행 법 3조에 규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됨.
 - 외국인 투자자가 공적 자금 참여를 위해 몰도바로 들여온 면세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업체는 3년 이내에 세금 전액 및 그 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상기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품의 잔여 가치에 따라 세금 산출(1994년 7월 27일, 법 No 197-XIII)
- 수출입에 대한 관세 특혜
 - 외국인투자기업은 자체 생산과 관련한 제품(제작품, 서비스)을 수입하고 자체 생산을 위한 제품(제작품, 서비스)을 수출할 권리가 있음(1994년 7월 27일, 법 No 197-XIII).
 - 외국인 투자업체는 수출용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수입품(원료, 반가공품 등)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음(1994년 7월 27일, 법 No 197-XIII).
 - 소득세 면제(1998년 2월 27일, 법 No 1592법에 의해 제외됨)
 - 추가 혜택(1998년 7월 29일, 법 No 114-XIV법에 의해 폐지됨)

3. 한국기업 투자동향

가. 개요

물도바 시장 규모가 작아 아직까지 우리 기업의 직접적으로 진출한 사례는 없다. 이는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발표하는 투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물도바 투자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물도바의 대 한국 투자 실적 또한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개요

몰도바 외국인 투자 보장은 헌법에도 반영돼 있고, EU 수준에 맞는 투자법 정비로 법적 환경은 양호한 편이다. 투자자들의 개발 정책에 대한 공권력 행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투자 형태가 공익에 위반된다 판단할 경우
- 투자의 방법의 불공정성이 발견될 경우
- 손익, 손해 배분이 불평등할 경우

투자자들은 공권력을 발효한 정부당국에 직접 고소할 수 있으며, 보상 받아야 할 경우 투자금 통화로 받게 된다. 한편, 몰도바 진출기업은 자국기업들보다 투자활동이 더 활발한 편이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한 경제적 성과(수출기여, 생산성)가 높은 편이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개요

몰도바에 있는 법인 사업은 다음으로 분류된다.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합자회사(Joint-stock company)
-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 유한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 협동조합(co-operative)

몰도바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 사업형태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와 합자회사(Joint-stock company)이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본금이 필요한데, 합자회사(Joint-stock company)는 최소 2만 몰도바 레우(≈ 1,091유로)가 필요하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정관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자본금을 구비하면 된다.

나. 등록 절차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별 소요기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일, 유로)

구분	일반등록	빠른등록
소요기간	5	2
비용	60	130

법무부에서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사회보장기금이사회(Social Security Fund)와 건강보험기금(Health Insurance Fund)에 추후 신고해야 한다. 회사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주식 발행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Financial)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서류 절차 진행은 약 15일간 소요되며, 총 주식발행금의 0.4%를 발행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후 추가적인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당국에서 발행한 해당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라이선스는 몰도바 허가원(Moldovan Licensing Chambe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www.servicii.gov.md).

6.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개요

몰도바가 EU 가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증진 관련법을 새로 제정하고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했지만, 아직까지 투자위험이 큰 것은 사실이다. 특히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의식은 몰도바 투자진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몰도바 정부는 부패방지위원회를 창설해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운영과정에서의 투명한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2013~2014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부패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개선사항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몰도바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고, 공격적 투자진출보다는 면밀한 현지 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진출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7. 노무관리제도

가. 개요

몰도바는 2003년 10월 1일 노동법(Labor Code)과 집단노동협약(Collective Labor Conventions)에서 노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몰도바의 노동법은 구소련시대에 제정돼 독립 후 일부 개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에서 사용되던 규정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현지 및 외국기업들의 현지 노동법 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은 편이다.

노동조합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의 힘이 막강하며 노사협상에서는 우위적인 입장이다. 노동자 대다수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며, 대기업, 국영기업 등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노조의 영향력이 크다.

근무시간

노동법(Labor Code)에는 주 5일 또는 6일 출근을 원칙으로 주당 40시간 근무가 명시돼 있다. 이 법은 야근과 주말근무를 되도록 제한하며, 야근수당은 평소 시급의 150~200%를 지급해야 한다. 주말근무에 따른 급여는 평일 근무시간 단축 또는 추가수당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고용계약

현지인을 채용할 때 고용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고용계약서에는 근무자의 직급, 급여 수준 등 노동법에서 지정한 항목이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하며, 통상적으로 근로기간은 무기한으로 정한다.

급여

고용주는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국 화폐인 레우(Leu)로 지급한다. 몰도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월 평균 급여는(2016년 기준) 4,997.80 레우로 우리 돈 약 33만원 수준이다.

8. 조세제도

가. 개요

몰도바의 조세제도는 EU 수준에 근접해 있다. 특히 기업에 부과하는 조세 부분에서 2014년에 발효된 47개 법안은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 항목에서 차용한 것으로, 몰도바 정부가 자국 내에서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이라 평가된다.

나. 세금 항목

법인소득세

납세자	세율
개인기업	7~18%
영농기업	7%
법인기업	12%
법인기업(중소기업)	3%

자료원: MIEPO ('18.7월 확인 가능 최신자료)

원천징수세(Residents)

명칭	세율
국내 거주 개인의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7%
국내 거주 개인의 동산 및 부동산 자산 이용 및 임대 수입, 광고 이용 수입에 대한 원천 징수	10%
배당금 원천 징수 (2008년 ~ 2011년 제외)	6%
개인에게 지급된 이자 수익 원천 징수	15%
개인에게 지급된 로열티(저작권료) 원천 징수	12%

자료원: MIEPO ('18.7월 확인 가능 최신자료)

원천징수세(Non-residents)

명칭	세율
배당금 원천 징수 (2008년 ~ 2011년 제외)	6%
근로 소득 관련 원천 징수	7~18%
기타 수입	12%

자료원: MIEPO ('18.7월 확인 가능 최신자료)

부가가치세(VAT)

명칭	세율
표준 부가가치세	20%
특정 품목 (빵, 유제품, 가스, 설탕 등)	8%
국제 운송, 경제자유구역(FEZ) 물품 운송, 특정 조건 하 기술 지원 프로젝트를 위한 물품 및 서비스 공급 등	0%

면세 항목: 금융서비스, 승객 운송 서비스 등

자료원: MIEPO ('18.7월 확인 가능 최신자료)

V. 비즈니스 참고정보

1. 물가정보

구분	항목	가격(물도바 레우)
식품(식당기준)	저렴한 식당	100.00
	일반 식당(2인 기준)	400.00
	맥도날드 (Mc Combo 기준)	75.00
	국내산 맥주 (0.5L 기준)	15.00
	수입산 맥주 (0.33L 기준)	25.00
	카푸치노 (일반 사이즈)	22.17
	펩시 콜라 (0.33L 기준)	10.56
	식수 (0.33L 기준)	7.61
식품(마켓기준)	우유 (1L 기준)	11.94
	식빵 (500g)	6.12
	쌀 (백미 1kg)	18.81
	달걀 (12개)	21.52
	닭 가슴살 (1kg)	65.95
	사과 (1kg)	12.72
	오렌지 (1kg)	24.53
	토마토 (1kg)	23.10
	감자 (1kg)	8.17
	식수 (1.5L 병)	9.77
	중저가 와인 (1병)	60.00
	국내산 맥주 (0.5L 기준)	13.83
	수입산 맥주 (0.5L 기준)	21.88
	담배 1갑 (말보로 기준)	25.00
교통운송	편도 승차권 (지역 교통수단)	2.00
	월 정기권 (지역 교통수단)	110.00
	택시 요금 (기본)	25.00
	택시 요금 (1km)	2.70
	휘발유 (1L)	17.78
	자동차 (폭스바겐 골프 1.4 기준)	300,000.00
여가활동	헬스정기권 (성인 1개월)	471.86
	테니스 코트 대여(주말 1시간)	168.56
	영화 티켓 (1좌석)	100.00
의류	청바지 1벌 (Levis 501기준)	1,038.24
	일반 드레스 1벌 (Zara, H&M기준)	696.43
	나이키 운동화 (1켤레)	1,726.67
	남성 가죽자켓 1벌	1,847.06
주거	시내 중상급 아파트 1달 대여료 (1bedroom)	4,177.78
	교외 아파트 1달 대여료 (1bedroom)	2,950.00
	시내 중상급 아파트 1달 대여료 (3bedroom)	7,384.21
	교외 아파트 1달 대여료 (1bedroom)	5,700.00
	시내 중상급 아파트 가격	15,914.67
	교외 아파트 가격	10,656.81

자료원: numbeo.com('18.7월 확인 가능 최신자료)

2. 취업유망분야 및 유의사항

가. 현지 상황

몰도바는 동유럽 최빈국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취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몰도바의 1인당 국민소득은 2,596달러로 우리와 약 1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참고로 몰도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 몰도바 월 평균 임금은 4,997.80 몰도바 레우로 우리 돈 약 33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 국가 기관이 몰도바에 상주해 있지 않고, 우리 기업들도 현지에 지사나 법인 형태로 진출해 있지 않아 한국인 채용 수요는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3. 비즈니스 에티켓

가. 개요

1991년 소련해체와 동시에 신생독립국으로 탄생된 국가이다. 국가명은 '몰도바' 강에서 유래됐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국경지역이 트란스드네스트르(TransDniestria)와 분쟁 중이므로, 해당 지역 통과 시 매우 주의가 요구된다. 몰도바 내 다수 민족은 몰도바인(루마니아계 민족)이고 전체 국민의 약 75%가 몰도바어(루마니아어와 사실상 같음)를 사용한다. 몰도바의 공식 언어는 몰도바어(루마니아어)이나 구 소련의 영향, 슬라브계 민족들이 함께 있어 러시아어도 통용되는 나라이다. 그러나 사실상 일상 생활과 비즈니스상에서는 루마니아어의 사용 비중이 높고 다른 CIS 국가들에 비해 자국어 사용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나. 대화 에티켓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구 소련 시대의 국가를 러시아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러한 편견을 버리는 것이 좋다. 따라서 몰도바를 러시아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경우 몰도바인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또한 몰도바가 유럽 최빈국에 속하는 경제적으로 매우 약한 국가인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선입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 않다. 몰도바 국민의 문맹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여유가 있고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

다. 인사

일상적으로 하는 인사말은 "buna ziua(안녕하세요)"이다. 안면 있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는 대체적으로 악수를 하며 서로 "salut(안녕)" 또는 "noroc(안녕)"이라고 인사한다. 가까운 친구를 만났을 때는 포옹을 하며 볼에 키스를 한다.

라. 복장

문화 행사나 공식적인 모임 참석 시에는 적절한 복장 착용 필요하다. 현지인들의 오찬이나 만찬에 초대받거나, 오페라 공연 관람 등 문화행사 참석 시 남성은 양복, 여성은 드레스 등의 정장형 복장을 갖춰야 한다. 그러므로 순수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여행객들은 정장형 복장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권장한다. 적절한 복장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공식 행사 또는 문화행사에 초대를 받았을 때는 사전에 반드시 초청자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남성의 경우 가능한 정장형 상의라도 빌릴 것을 권장한다.

마. 식사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초대된 사람이 지불하려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만약 집으로 초대받아 식사를 한다면 캐주얼 복장을 입어도 무방하다. 건배를 할 때는 "건강을 위해(Chin-Chin)"라고 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술을 따를 때 술잔을 들지 말아야 한다. 현지인과 술자리를 할 때 술잔을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술잔을 드는 경우 복(돈)이 달아난다는 미신적 풍습이 있다.

바. 선물 에티켓

선물은 대체로 눈에 보이도록 포장하지 않고 선물하는 경향이 있다. 대개 꽃, 집안 장식품, 시계, 접시 등을 선물한다. 몰도바는 와인이 특히 유명하므로 선물로 와인을 줘도 무방하다.

4. 이주정착 가이드

가. 거주지

부동산 업체를 통해 집을 구할 경우에는 통상 월 임차료의 50~100%를 중개수수료로 지불한다.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동산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재원이나 아파트 경비 사무실을 통해 비어있는 집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사전에 임차할 집의 위치를 대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야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집주인에 따라서는 꼭 부동산 중개업체를 개입시키는 경우도 있다.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구나 엘리베이터 내부가 깔끔하고 넓은 곳이 드물며, 같은 건물이라도 층마다 복도의 상태가 다르고, 같은 층이라도 아파트마다 문이나 내부구조, 인테리어 등이 다르다. 몰도바의 경우 집 외부장식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대문부터 시작해 집 내부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도 골조분양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공공시설보다는 내부시설에 투자를 집중한다.

그러나, 최근 개인주택과 City Town이 크게 증가하면서 외국인들의 주택 임차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원 및 주택 외부 관리 제품 및 서비스도 증가 추세이다. 한편, 치안이 아직 양호한 편이나 빈부격차가 커짐에 따라 도둑, 강도, SKIN HEAD 등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니 주택 임차 시 보안과 접근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 현지 한인 사회

2017년 기준, 우리 외교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몰도바 거주 우리 국민의 수는 14명으로 대부분이 현지에 파견된 선교사와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수가 많지 않아 한인 사회 활동이 왕성하지는 않고, 한-몰도바어 통역이 가능한 자원들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몰도바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대사관이 없어 현지 생활 정보 획득이 쉽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몰도바 현지 정착이 필요한 경우 이미 현지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나 '블라디미르 루수' 주 몰도바 대한민국 명예영사를 통해 정착에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5. 생활여건

가. 화폐단위

몰도바의 화폐단위는 몰도바 레우(Moldovan Leu)로 약칭은 MDL이다. 지폐에는 1, 2, 5, 10, 20, 50, 100, 200, 500, 1000몰도바 레우 등이 있다.

나. 환율 및 환전

2018년 7월 17일자 몰도바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Moldova) 고시 환율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는 MDL 16.70, 유로화는 MDL 19.56로 고시했다. 현지 환율 추이는 몰도바 중앙은행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홈페이지: www.bnm.org/en/home

호텔, 은행, 그리고 시내의 도처에 산재해 있는 사설 환전소에서 달러화, 유로화, 루블화를 현지화(몰도바 레우)로 환전할 수 있다. 환전소 간 다소 환율 차이가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인근 시중환전소의 환율을 비교해 보고 환전을 하는 것이 좋다. 단, 공항환전소는 환율 수수료가 매우 높아 현지화로 환전할 때 다소 불리하므로 현지화로 환전 시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암달러상은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해도 적용환율에 별 차이가 없다. 또한, 암달러상을 통한 환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암달러상을 통한 환전은 피하도록 한다. 환전소에서 현지화를 달러화로 재환전하는 것은 가능하나 환차손을 입게 되므로, 당장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행자수표는 일반 환전소에서 받지 않으며, 일부의 은행에서만 환전해 주므로 사용이 매우 불편하다.

다. 호텔

몰도바 수도 키시너우 내 호텔 가격은 타 유럽 국가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다. 호텔 및 주요 편의시설 대부분이 키시너우 중심지인 거버먼트 하우스(Casa Guvernului) 인근에 집중되어 있다.

몰도바 수도 키시너우 호텔 가격 수준

호텔 등급	1박 가격 (조식 세금 포함)
5성급 호텔	2,900레우(180유로) 내외
4성급 호텔	2,000레우(125유로) 내외
3성급 호텔	960레우(60유로) 내외
2성급 호텔	470레우(30유로) 내외

자료원: 키예프 무역관

라. 신용카드 사용

몰도바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거주 등록이 된 경우 카드 발급이 가능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을 은행에 입금한 후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발급은 가능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직불카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발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또한 호텔, 대형마켓, 대형식당 등 일부 거래만 가능하므로 카드 사용이 대중화되지 않았으며, 호텔이나 식당 등에서도 신용카드를 지불하려고 할 때 기기 고장 등 이유로 결제가 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출장 시 어느 정도의 현금은 준비해 오는 것이 필요하다. 호텔에서 체크인할 때 통상 신용카드 예치나 호텔요금 선불을 요구하므로 국내 신용카드 최소 1개 정도 소지하는 것을 권고한다.

마. 은행 계좌 개설

집세 및 공공요금을 현금이나 거리에 있는 자동납부기계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지 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특히 집주인들은 집세를 달러 또는 유로화 현금으로만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집주인이나 건물주는 임차료를 제3국에 있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것으로 임대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직불 계좌는 개설이 용이하나,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계좌의 개설은 쉽지 않다. 은행 계좌의 이자는 없고, 현금 입출금이나 송금 시에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서비스 이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

6. 취항정보

가. 항공편

우리나라와 몰도바 간에는 직항로가 없어 모스크바 또는 유럽 주요 도시(프랑크푸르트, 프라하, 헬싱키, 이스탄불 등)를 경유해야 한다. 모스크바-서울 간에는 대한항공과 Aeroflot이 운행되고 있는데, 모스크바를 경유하는 비행편의 항공 요금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주요 항공사 리스트

Air Moldova, Austrian Airlines, Turkish airlines, Tandem Aero, S7 Airlines, Tarom, Air italy, lufthansa, ATLASGLOBAL, Wizz air, International Ukrainian Airlines, AEROFLOT, LOT Polish Airlines, FLY ONE이 현재 몰도바 키시나우 국제공항으로 취항 중이다.

7. 출입국 및 비자제도

가. 출입국 및 비자

○ 비자

- 우리 국민의 경우 180일 기간 내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체류 가능 (2014년 1월 3일부 시행)
- 90일 이상 관광 및 기타 목적의 몰도바 입국에 대해서는 몰도바 대사관(한국 미소재)를 통해 비자 발급 필요
- 비자 종류 및 발급 관련한 상세 정보는 하기 '몰도바 외교 및 유럽통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관련 홈페이지 : www.evisa.gov.md/

○ 주 일본 몰도바 대사관

- 우리나라에는 몰도바 대사관이 없어, 주 일본 몰도바 대사관에서 대한민국을 함께 관할
- 주소 : 3F, 72, Enoki-cho, Shinjuku-ku, Tokyo. 162-0806
- 연락처 : (+81) 3-5225-1622

○ 해외 주재 몰도바 대사관 연락처

- 주 러시아 주재 몰도바 대사관 : (+7 495) 624 5353
- 주 우크라이나 주재 몰도바 대사관 : (+38 044) 521 22 80
- 주 루마니아 주재 몰도바 대사관 : (+4 021) 230 04 74

나. 출입국 수속 및 세관신고

우리 국민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국 서류 작성 없이 몰도바 입국이 가능하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정 용량 이상의 제품이나 1만 유로 이상의 외화를 소지하였을 경우 몰도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휴대품	통관 기준
술	양주류 및 와인류: 2리터 이하 맥주: 5리터 이하
담배	궐련(cigarette): 200개비 이하 시가(cigar): 50개피 이하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 기준)	개인용으로 인정되는 노트북, 카메라 및 귀금속류는 반출을 전제로 면세 반입이 가능하나, 출국 시 반출을 위해서는 입국 시 반드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해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함. 반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전자제품, 고급의류, 약기 등 고가품목은 물품에 따라 차등 과세됨.
외국환 신고	외국인 여행객은 휴대한 모든 외화(여행자수표 포함)가 1만 유로 상당을 초과해 휴대반출 및 입하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함. 출국 시 휴대한 외화금액이 입국 시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반출허가증명서와 함께 세관신고서를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함. 신고 불이행 시 상당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몰수당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의약품	각 종류별 총 5개까지 휴대 반출입 가능
식품	총 합계 50유로 상당 이하 가액의 가공된 식품 휴대 반입 가능(2kg 이하)
반입불허품목	총기류, 마약류, 유해 약품

8. 관광, 호텔, 식당, 통역

가. 관광

몰도바 수도, 키시나우(Chisinau)

키시나우는 공원과 호수들이 옆에 놓여있는 비크 강(Byk River) 기슭에 위치한 푸른 도시이다. 이 도시는 교통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길게 줄지어 서있어서 수도보다는 루마니아의 시골 마을에 가깝다. 키시나우는 제2차 세계대전 폭격으로 옛 건물 3분의 2가량이 파괴됐다. 키시나우는 명백히 재건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는 위엄 있는 옛 건물들과 러시아식 동근 지붕의 대성당들이 많이 남아있다. 스탈린주의 시대 때 우뚝 선 굴라그-갯빛(Gulag-grey)의 상자같은 건물들, 도시 주변에 생겨나고 있는 수많은 핑키스타일 바와 카페들의 분점, 만연해 있는 경제 현실에 역행해 가려는 힘겨운 노력들이 옛 건물들과 혼재돼 있다.

키시나우 주변 시골지역에 가보면 빈곤의 범위가 명확해진다. 유명작가 알렉산더 푸쉬킨(Alexander Pushkin; 키시나우에서 수년간의 유배생활을 보냈다)과 미하이 에미네스쿠(Mihai Eminescu)의 동상을 제외하곤, 이 도시에 직립해 있는 대부분의 석공품은 일종의 전쟁 기념비이다. 스테판 셀 마레 대로(Bldv Stefan cel Mare)의 서쪽 측면에 솟아있는 스테판 셀 마레 공원(Stefan cel Mare Park) 안에는 스테판 셀 마레의 동상이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중세 때 전사했던 왕자는 아직도 몰도바에서 영웅같은 존재이다.

몰도바 주변에는 수많은 박물관들이 있지만 국립 역사박물관(National History Museum)이 가장 눈여겨볼 만하다. 1945년 소련의 키시나우 침공을 실물 크기로 제작한 전시품이 있는데, 굴라그 갯빛의 말과 장정들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외에 전시홀(Exhibition Hall) 안에 위치한 갈레리아 브란쿠시(Galeria Brancusi)에서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은 소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키시나우에는 바둑판 무늬로 곧은 길들이 나 있다. 키시나우 주요 거리는 스테판 셀 마레 대로로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다. 북쪽 끝에는 주요 대성당들과 몰도바 아크 드 트라이움피(Moldova's Arc de Triomphe) 같은 엄청난 건물들이 우뚝 솟아있는 중앙광장이 있다. 레스토랑과 호텔들이 시 중심지 전역에 퍼져있다. 거리들은 곧게 뻗어있지만, 거리 이름들은 다양하다. 어떤 거리는 몰도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거리는 아직도 러시아 이름을 쓰며, 어떤 곳은 옛것과 새 것 둘 다 가지고 있다.

포도주 양조장(Wineries)

몰도바의 포도주 양조장 대부분은 공식적으로 인가된 투어로만 방문할 수 있다. 가이드와 함께 방문하면 추가요금을 지불하고 그 자리에서 직접 포도주를 시음할 수도 있다. 크리코바(Cricova)는 키시나우 북쪽으로 약 15km(9마일) 떨어진 곳으로, 60km(19마일)가 넘는 미로식으로 뻗은 지하 거리들이 있다. 이는 각 술집을 방문하며 가게마다 차이점을 알아갈 수 있는 주류 순례길이다. 크리코바의 모든 거리는 포도주 타입을 딴 이름이 지어져 있다. 피노트거리(Pinot Street)에서 동쪽으로 향하기 전에 카베르네트거리(Cabernet Street)를 걸어도 좋다.

크리코바 동쪽 15km(9마일) 지점은 코쥬스나(Cojusna)로 적포도주와 백포도주, 보드카와 독한 포트와인을 생산하는 곳이다. 코쥬스나는 술을 자주 마시는 관광객을 위한 곳이지만, 프랑스 스타일의 샤토와인(chateaux) 같은 오래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지하저장소인 코쥬스나에는 실제 포도농장이 없고 해당 지역 조그만 포도농장들로부터 수확물을 받아 저장한다. 키시나우 북동쪽 12km(4마일)인 스트라세니(Straseni) 포도농장은 거품이 이는 백포도주로 유명하다. 이곳이 바로 코쥬스나에서 기대해도 좋은 포도농장 중 하나이다. 이곳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는 가장 큰 양조장 중 하나이자 과거 USSR 포도주생산의 선두주자였던, 로만네스티(Romanesti) 포도주 양조장이 있다. 로만네스티 포도주 양조장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 중 하나는 보르도(Bordeaux) 타입의 적포도주로, 수많은 러시아의 유명한 황제들의 사랑을 받았던 제품이다.

크리코바의 포도주 양조장을 방문하는 것은 오직 투어상품을 이용해야만 가능하다. 해당 투어상품은 키시나우의 포도주양조장 유람 사무소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이 관광상품의 비싼 이용료에는 최소 왕복교통비가 포함돼 있다. 코쥬스나 양조장을 방문하고자 하면, 해당 공장에 전화해서 사전예약을 하고 키시나우에서 버스를 타고 그 마을로 가면 된다.

카프리아나(Capriana)

스트라세니 남서쪽 7km(2마일)에는 고립된 마을 카프리아나가 있고, 그곳에는 오래된 수도원이 있다. 이곳은 14세기 수도원으로 소련시대 때 호전적인 무신론과 그의 필수로 따라온 약탈과 강탈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곳이다. 이곳은 각기 다른 시대 때 지어진 3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가장 오래된 것은 14세기 고전 바로크양식으로 지어진 성모 승천(Virgin's Assumption)교회이다. 성 니콜라스 교회(Saint Nicholas' Church)는 1800년대에 지어졌고, 성 조지 교회(Saint George's Church; 대수도원장의 저택과 식당, 수도자 독방들하고 인접해 있다)는 20세기 전환기에 지어졌다. 42명의 그리스정교회 수도사들이 오늘날까지 이 수도원을 사용하고 있다. 키시나우에서 카프리아나까지 매일 3대의 버스가 운행하지만 버스들이 키시나우로 거의 바로 돌아오며, 거리는 30km(10마일)이다. 이점이 당일 여행을 어렵게 한다.

오휴일 베치(Orheuil Vechi)

고대도시인 오휴일 베치 또는 옛 오헤이(old Orhei)는 가끔 트레뷰제니(Trebujeni)로 불리며 몰도바 삼림지대 밖에 있다. 이곳은 고고학적으로 경이로운 곳으로, 중세 마을의 폐허들뿐만 아니라 석기도구의 사용이 그 절정에 달했다고 볼 수 있는 고대 문명의 유물들을 볼 수 있다. 회교사원 1개, 능(陵) 2개, 대상(隊商)들의 여성숙소, 목욕탕 3개, 전형적인 몰도바 가옥의 흔적들이 있는 이 마을의 유물들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돼 있다. 이 단지 외에도, 스테판 셀 마레에 의해 14세기에 지어졌다가 타타르인에 의해 1499년에 파괴된 고대 요새와 석회 절벽 정면에 만들어진 고대 계단이

있다.

부투체니 암자(hermitage of Butuceni)는 13세기 동안 수도사들에 의해 지어졌고, 중세시대 때 행해진 건축술의 역할에 대한 고전적인 본보기가 된다. 이곳은 예배 장소로 외에도 피난처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곳 내부는 이음매가 거의 없는 북도의 망으로 기하학적인 선이나 급격한 방향전환이 결여돼 있고, 돌을 잘라 만든 직사각형의 문들을 통해 어둠을 꿰뚫는 빛이 들어온다. 18세기 동안 어떤 시기에 부투체니를 이웃하고 있는 충실한 신도들이 작은 예배당으로 통하는 터널을 뚫고, 그로 인해 그들은 상대적으로 은밀히 그들의 종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 대중교통으로 오휴일 베치에 가는 것은 힘들다. 맨처음 키시나우에서 오헤이마을까지 약 50km(16마일)를 버스로 가고, 거기에서 다른 버스로 오휴일 베치나 트레뷰제니로 간다. 가는 도중에 버스기사에게 수도원 단지(Monastery Complex)에 내려줄 것을 부탁하면 된다. 또한 택시로 오헤이와 오휴일 베치 사이를 왕복할 수 있다.

가가우지아(Gagauzia)

몰도바 남부의 가가우지아 자치공화국은 터키어를 쓰는 그리스도교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이 민족의 이슬람교 자손들은 18세기 러시아와 터키 간의 전쟁에서 도망쳐 나왔다. 이 지역으로 들어오기 위해 그들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터키사투리인 그들의 언어를 버려야 했다. 현재 이 언어는 러시아어쪽으로 변하고 있다. 가가우즈(Gagauz)는 몰도바 국가주의 표면에 나타난 완고함을 설명할 수 있다. 가가우즈는 일반적인 전범위 유효정책에 저항해 왔다. 공화국에서 탈퇴하겠다는 가가우즈의 완고한 태도는 마침내 몰도바 정부를 포기하게 했다. 작지만 의미있는 이러한 구조의 변화들이 가가우지아 지역이 자치적이고 정부보다 더 낫다고 인정받는 길을 닦아 나가게 했다. 가가우지아의 수도인 콤라트(Comrat)는 빈약한 마을로 키시나우 남서쪽 약 75km(24마일) 떨어져 있다. 대학에서의 수많은 연구를 제외하면, 콤라트에서는 별 특별한 일이 없지만, 이곳은 가가우즈 독립에 대한 이슈로 1990년에 몰도바 군대와 가가우즈 국가주의자들 간 폭력적인 충돌이 있던 곳이다. 키시나우에서 일일 왕복버스가 아주 조금 있고 당일 여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곳에서는 숙소 선택이 제한적이다.

트랜스드니에스트르(Transdnestr)

트랜스드니에스트르는 1991년 공화국이 처음 형성된 이후로 몰도바 정부 측에서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분리주의자 저항군은 러시아 군대의 지지와 지원을 받으며 줄곧 말썽을 피워왔다. 트랜스드니에스트르는 티라스폴(Tiraspol)을 수도로 삼고, 그들 자신의 통화와 군대, 미디어, 경찰력 등 스스로 선언된 공화국이지만 가상의 국경을 그리고 (실제) 총을 가진 (비공식적인) 국경수비대로 국경을 지키고 있다. 또한, 그들 자신의 대통령으로 이고르 스머노프(Igor Smirnov)를 뽑았다. 이곳보다 더 러시아를 닮은 곳은 없다.

트랜스드니에스트르 시민 중 3분의 2는 나이가 지긋하고 가난하며, 삶의 질이 훨씬 나았던 소련 통치의 좋았던 옛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만연한 인플레이션, 거의 가치가 없는 통화, 낮은 임금, 러시아 경제의 붕괴와 치솟는 부채는 트랜스드니에스트르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방문할 가치가 있다. 이곳에는 견고, 말하고, 숨쉬는 스탈린주의자식 정부의 무덤이 존재한다. 트랜스드니에스트르 철의 장막은 밖에서 조심스레 살짝 엿볼 수 있다. 이곳엔 황금 아치(arch)들도, 코카콜라 광고판도 더블 디카프-카프스(double decaf-cafs)를 파는 펄키스타일의 카페도 없다. 소작농의 실용주의와 스탈린주의자의 공리주의가 전부이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 여행자들도 환영하지 않는다.

트랜스드니에스트르에서는 3단 가격시스템 때문에 외국인이 머물기에는 꽤 비싸다. 평균 이하의 숙소가 하룻밤에 약 \$60이며, 이는 트랜스드니에스트르에서 한 달 월급에 달하는 액수이다. 키시나우와 티라스폴 사이 50km(16마일)를 운행하는 수많은 버스가 매일 있고, 콤라트와 티라스폴 사이에는 하루 한 대가 운행된다. 트랜스드니에스트르는 모든 외국인 방문객이 도착 3시간 안에 경찰에 등록하고 수수료(달러)를 내야 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다소 강력한 정책으로, 그들이 정의한 외국인에는 몰도바 국민도 포함된다.

나. 몰도바 관광 관련 웹사이트

몰도바 관광업체

- Aerotur Moldova1: <http://www.transaero.md/>
- Amadeus: <http://www.amadeus.md/>
- Chateau Vartelej: <http://www.amadeus.md/>
- Elit-Tur: http://www.vartely.md/?lang=en&menu_id=105
- Explore-Moldova: <http://www.hotelflowers.md/>
- OK Travel: <http://www.oktravel.md/en/tourism/tourism-in-moldova>
- Solei Tourism: <http://www.solei.md/eng/main/>
- Tatrabis: http://www.tatrabis.md/moldova_en/
- VOIAJ Tours: <http://www.voiaj.md/en/tour/incoming/tours/>
- Volare Tur: <http://jazz-hotel.md/>

몰도바 와인

- Moldova Wine Guild: <http://www.moldovawineguild.md/index.html>
- Wine Searcher-Moldova: <http://www.wine-searcher.com/regions-moldova>

- Moldovan Wine News: <http://www.vinmoldova.md/>
- Association of Moldovan small wine producers: <http://www.winemoldova.com/>
- Moldovan Export Wines: <http://www.wineanorak.com/moldovanwine.htm>
- Moldova Wine Day Group: <https://www.facebook.com/moldovawineday>
- Chateau Cojusna: <http://www.migdal.md/>
- Chateau Varteley: <http://www.vartely.md/>
- Cojusna Winery: <http://www.fabricadevincojusna.md/>
- Cricova: <http://www.cricova.md/>
- Et cetera: <http://www.etcetera.md/>
- Kvint: <http://www.kvint.biz/>
- Milestii-mici: <http://www.milestii-mici.md/>
- Pinterest, Moldovan Wine: <http://pinterest.com/moldovaholiday/moldovan-wine/>

다. 호텔 정보

키시나우 소재 주요 호텔 리스트

호텔명	주소	가격대
Nobil Luxury Boutique Hotel (5성급)	Strada Mihai Eminescu 49/1, Chişinău	250달러 내외
City Park Hotel (4성급)	Strada Eugen Doga 2, Chişinău	80달러 내외
Luna Hotel (3성급)	Strada Mitropolit Petru Movilă 4, Chişinău	70달러 내외

라. 통역 정보

2017년 기준, 몰도바 재외국민의 수는 14명으로 한인 수가 극히 적은 나라이다. 현지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 한-몰도바어 통역을 구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한국어 통역 자원이 많지 않다는 애로가 있다.

9. 출장 시 유의 및 참고사항

가. 기후

기후 특성

대륙성 기후로, 여름이 길고 따뜻하며 겨울이 비교적 춥지 않다. 수도 키시나우의 1월 평균기온은 -4°C이고 7월 평균기온은 21°C이다. 또한 연평균 강수량은 남서부에서 400mm, 북부에서 560mm 정도이며, 6월과 7월에 강수량이 많다.

자연재해

지진, 태풍 등의 천재지변은 거의 없으나, 겨울이 다소 길고(11~4월) 혹한과 폭설이 있는 만큼 겨울철 여행객들은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

나. 교통편

자동차 (렌터카)

몰도바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처음 운전하는 사람들의 경우 현지에서 차를 렌탈해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다. 만약 몰도바에서 운전을 해야 한다면,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만 한다. 몰도바 내 주요 렌터카 업체는 다음과 같다.

- SIXT Rent
 - 연락처 : +373 686 60 066
 - 홈페이지 : www.sixt.com/
- CAR4RENT (Chirie auto Moldova)
 - 연락처 : +373 692 20 633
 - 홈페이지 : www.car4rent.md/

택시

몰도바 키시너우에서 택시는 많은 편이지만 때때로 찾기 힘들 때가 있다. 일부 택시는 차도의 연석 위에서 소리치면 세우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대신 번화가 근처나 가게 또는 레스토랑이 있는 지역에 주차된 택시를 찾아야 한다. 몰도바는 표준화돼 있는 택시 색상이 없으므로 일반 차와 택시를 구분하기 힘들다. 몇몇의 독립 사업자의 자동차는 차량 상단에 '택시' 기호만을 표시하기도 한다.

택시를 스스로 호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택시 사업자는 영어를 하지 못한다. 택시를 호출할 때 현재 있는 위치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분명히 말한 후 전화번호를 남겨야 한다. 몰도바 택시 사업자는 대부분 2분 안에 회신전화를 주는데 이때 어떤 택시가 올 것인지,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알려준다. 택시는 대개 5~10분 안에 온다.

몰도바 택시 안에는 요금 미터기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있더라도 그 요금 미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 수 없다. 키시나우 내에서의 택시 요금은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5~40 몰도바 레우 정도 들어간다. 도심에서 공항까지의 요금은 통상적으로 150 몰도바 레우 전후로 요금을 청구하는데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있다.

기차

국내선의 경우 몰도바 수도 키시나우에 위치한 '키시나우 역'을 중심으로 몰도바 주요 도시들로 이동이 가능하다. 국제선의 경우 키시나우 역을 중심으로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루마니아 이아시, 우크라이나 오데사, 러시아 모스크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연결된다.

열차 관련 정보는 몰도바 철도청 홈페이지(www.railway.md)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루마니아어와 러시아어만 지원된다.

시내 전차 및 버스

키시나우에서 머리 위의 전기선을 이용해 달리는 전차와 버스는 편리하고 저렴한 이동수단이다. 전차 요금은 탈 때마다 2몰도바 레우, 버스는 3몰도바 레우다. 요금은 전차나 버스 안에 있는 판매원에게 지불하면 된다. 만약 표 판매원을 찾지 못 하더라도 판매원이 탑승객을 찾아가니 걱정할 필요 없다.

만약 키시나우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한다면, 아래 버스 터미널을 통해 이동이 가능하다.

- THE CENTRAL BUS STATION (GARA CENTRALA)
 - 주소 : Mitropolit Varlaam St 58, Chisinau, Moldova
 - 전화 : (+373 22) 54 21 85
- THE SOUTH BUS STATION (GARA DE SUD)
 - 주소 : Hincesti Hwy 145, Chisinau, Moldova
 - 전화 : (+373 22) 72 39 83
- THE NORTH BUS STATION (GARA DE NORD)
 - 주소 : Strada Calea Moșilor 2/1, Chișinău 2024, Moldova
 - 전화 : (+373 22) 41 13 38

다. 여행 시 유의사항

식수

몰도바 정부는 박테리아 감염을 막기 위해 식수(수돗물)를 끓이거나 정수시킨 후 마시도록 권장하고 있다. 가급적 시중에서 판매하는 Mineral Water를 구입해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독감

매년 12월~1월쯤에는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므로 이 시기에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독감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치안

치안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범지역, 야간 및 단독 외출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 몰도바 정부는 마약 관련 범죄를 매우 엄중히 다루고 있다. 마약밀매 또는 마약복용 등 마약 범죄에 연루 또는 마약과 관련된 의심 가는 행위는 절대로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몰도바는 우리 대사관이 소재하지 않는 국가이다. 여행객들은 사전에 여행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현지 초청자의 연락처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금인출기 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기

- ATM 카드 도용 사례

범행자들이 ATM 기계에 일반 사용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 카드정보 판독기를 부착(ATM 기계 카드 삽입구에 원래의 삽입구와 거의 같은 모양의 불법 판독기를 덧씌움)해, 카드 사용자가 불법 판독기가 부착된 기계에 카드를 삽입하는 경우 동 카드의 정보가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법 복사된다. 이어 ATM 기계 좌우측에 걸려 있는 선전인쇄물 보관대에 숨겨진 소형 비디오카메라에 의해 사용자가 누르는 비밀번호가 녹화돼 결국 모든 카드정보가 범행자들에게 유출된다.

- 신용카드 도용 사례

신용카드 도용은 몰도바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형의 범죄수법으로, 식당 또는 상점 직원이 소형의 카드정보 특수 전달기를 사용해 사용자의 카드 정보를 범행자들의 다른 카드에 전달, 입력시키는 경우, 또는 은행구좌 종류에 따라서는 카드 사용자의 계좌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 대처방안

현지의 사정상 위와 같은 사례의 범행은 적발이 어렵고, 적발하더라도 보상받기가 어렵다. 여행객들은 카드 사용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 거래은행을 통해 바로 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라. 유용한 연락처

- 몰도바 긴급전화
 - 화재 : 901
 - 경찰 : 902
 - 응급환자 : 903
- 한국 기관 : 몰도바에는 우리 국가기관이 주재하고 있지 않고 모두 우크라이나 주재기관에서 관할 중
 -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 전화번호 : +38 044 246 3759 (~61)
 - 긴급 연락처 : +38 050 437 1606
 - 긴급 민원 : +38 095 852 7711

마. 2018년 공휴일

일자	내용
1월 1일	신년 휴일
1월 7~8일	정교회 성탄절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4월 8~8일	부활절
5월 1일	노동절
5월 9일	승리의 날
6월 1일	세계 어린이의 날
8월 27일	몰도바 독립 기념일
8월 31일	몰도바 민족 언어의 날
10월 14일	수도 키시나우의 날 (키시나우만 공휴일)
12월 25일	카톨릭 성탄절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 몰도바 정부 공식 홈페이지
- URL: www.moldova.md

- 몰도바 대통령 공식 홈페이지
- URL: www.president.md

- 외무부 공식 홈페이지
- URL: www.mfa.gov.md

- 몰도바 수출투자진흥기관 공식 홈페이지
- URL: www.miepo.md/

- 몰도바 상공회의소 공식 홈페이지
- URL: www.chamber.md

- 몰도바 재경부 공식 홈페이지
- URL: www.mec.gov.md

- 몰도바 통계청 공식 홈페이지
- URL: www.statistica.md

11. KOTRA 무역관 안내

가. 무역관 연락처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키예프 무역관에서 관할)

- 주소: 4th Floor Business Center "Kreshchatik Plaza", 19a Kreshchatik St. 01001, Kiev, Ukraine
- 전화: (380-44)-495-2951
- 팩스: (380-44)-495-2978
- 이메일: kyiv@kotra.net.ua
- 국문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KBC/kyiv/KTMIUI010M.html>
- 현지어 웹사이트: <http://www.kotra.net.ua/>

나. 무역관 약도



키예프 무역관은 지하철 Khreshchatyk 역사와 붙어있으며, 키예프 시내 최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쉽게 찾아올 수 있다.

택시를 이용(키예프 보리스필 국제공항→키예프 무역관)할 경우 택시요금은 대략 U\$15 내외로 소요시간은 40~50분이다. 사전에 가격을 흥정하여 탑승하여야 나중에 바가지 요금 청구를 예방할 수 있다.

공항버스(SKY BUS)를 이용(키예프 보리스필 국제공항→키예프 무역관)할 경우 종착역인 1호선 키예프 중앙역(Vokzalna)에서 하차한 후, 지하철을 이용하여 흐레쉬차티크 역에서 내리면 된다. 흐레쉬차티크 역에는 출구가 3개 있는데 그 중 흐레쉬차티크 거리 방향 출구로 나오면 된다.

